

내과 수의사의 재미있는 피부질환 이야기

“전신적에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송치윤
해마루 동물병원
수의내과학 석사
Cysong@haemaru.co.kr

본격적인 글 작성에 앞서 본 연재글은 학술기고글이 아니며 에세이 형식의 기고글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루 동물병원 내과 송치윤 수의사입니다. 지난 두 달에 걸쳐 모낭충 치료의 새로운 옵션으로 떠오른 Fluralaner에 대해 소개했었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두 달 동안 했으니 이번 호에서는 케이스소개로 가 볼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네요. 그래서 환자 아니지만 최근에 본원에 내원하였던 환자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상 수의사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케이스였기도 했어요. 반추해 보는 의미정도라고 할까요??

처치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저희 병원 내과 주치의중 막내인 양예슬 선생님이 환자하나를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두드러기 환자인 것 같은데 어때 보이세요?” 제가 봐도 매우 심한 두드러기 증상 같더군요.

양예슬 선생님이 저에게 데려왔던 이 환자는 14세령의 중성화한 암컷 슈нау저로 실제 본원 의뢰목적도 전신적인 두드러기 증상이었습니다. 과거부터 피부는 만성적으로 중

지 못했던 환자였다고 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고본원 내원 수일 전부터 입술주변에 발적이 먼저 발생했는데그 다음날에는 등쪽까지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뢰병원에서도 역시 두드러기로 보고 스테로이드 주사와 항생제 처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개선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두드러기가 발생했고 추후에는 반응도 없고 오히려 소양감 및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특별한 기왕력은 없었으나 켄드랑이와 꼬리쪽에 중



그림 1. 본 회지의 주인공. 환자는 만성적인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다. 꼬리 및 켄드랑이의 증괴를 제거한 것 이외에 특별한 기왕력이 없었으나 수일 전 발생한 두드러기 증상을 주증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등, 엉덩이, 복부 전반에 걸쳐서 두드러기로 추정되는 병변이 존재하였으며 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상황이었다.

과가 있어서 제거한 경력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직 검사등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봐도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뭔가 자주 빛이 도는 것이 일단 피하출혈과의 감별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울퉁불퉁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원 내원시점에서는 크게 부피가 있는 병변은 아니었거든요.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리압진법(diascopy)입니다.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검사지요. 확인하고 싶은 부위를 슬라이드 글라스로 압력을 가해 눌러 보는 것입니다. 그림2를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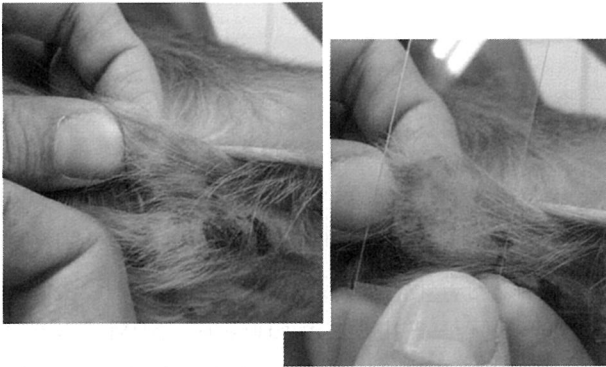


그림 2. 본 케이스의 diascopy 장면은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했다. 그림2는 저자의 다른 환자에서 diascopy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특정한 이후 그 위로 슬라이드 글라스를 두고 피부 표면에 압력을 가해 누르고 있는 장면. 본 환자의 경우 붉은 부분이 다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하출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환자는 diascopy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림2와 같이 diascopy를 진행했을 때 압력이 가해진 부위가 본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피하출혈이 아니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미 육안병변상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니까요.

피하출혈은 피부층 아래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면서 혈액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로압력이 가해진다고 붉은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확장되서 붉은 빛이 생기는 피부병변들은 압력을 가해주면 혈관이 눌러지면서 해당부위로 이동하는 적혈구들이 감소하게 되고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병리학시간에 배웠던 염증의 과정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먼저 염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변화가 염증부위로 순환혈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순환혈류량이 증가하려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야 하고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 분포가 많은 피부부위나 얇은 피부부위에서는 많아진 적혈구들의 양이 피부색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적이 대표적인 염증반응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렇다면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드러기는 증상이지 질환명이 아니기 때문에 두드러기라는 증상 자체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두드러기라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두드러기를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입니다. 과민반응은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음식, 약물, 벌레등에 의한 물립, 수혈, 백신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드러기환자가 내원하면 환자의 육안병변을 보고 이 병변이 과민반응에 의해 생기는 병변이라는 것을 떠올린 다음 무엇에 과민반응이 발생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드러기로 환자가 내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입니다. 흔히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것들과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본 환자도 문진으로 해당시점에서 특별히 먹이지 않던 음식을 먹인 경력은 없는지, 음식의 보관상태는 어떠한지, 최근 약물 사용경력 그리고 생활환경(곤충등에 의해 물렸을 가능성 확인)을 물어보았고 최근 수혈경력이나 백신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원래 계란을 먹었으나 노른자를 다 먹은 상황은 처음이라는 것, 한달전에 입양한 고양이가 있다는 것 말고는 과민반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증치치 이후 재발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그럼 특별히 의심되는 상황이 없다는 거지? 반응이 늦은 애들은 1주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1~2주 이상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처방하고 괜찮아지는 것 확인했다가 재발하면 다시 내원하라고 해”라고 후배 수의사에게 이야기 했죠.

그리고...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가 다시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이 친구 몸에 1cm 정도 되는 종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시나 해서 FNA를 해봤는데 비만세포종 같아요”

수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해야하는 것들이 있다면 문진이나 신체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기에 혈액검사나 뇨검사까지를 합쳐서 최소기본검사(Minimum data base)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문진을 하지도 않은 환자를 신체검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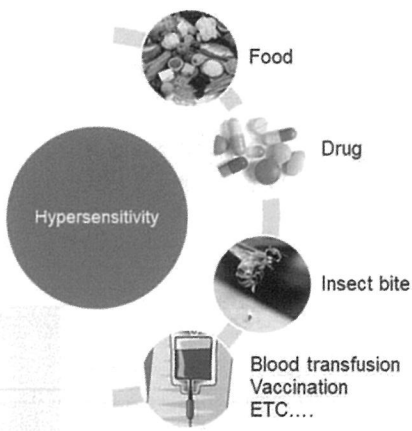


그림 3. 일반적인 Hypersensitivity의 원인들

하지 않고 육안병변만으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만 했던 것이죠. 정말 부끄럽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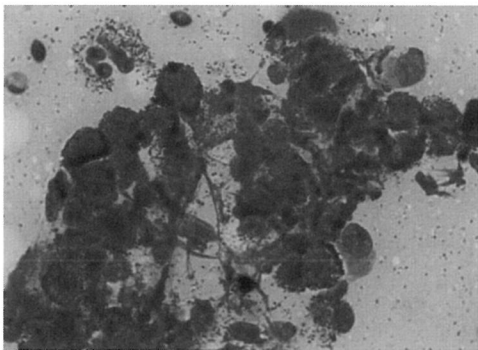


그림 4. 본 환자의 좌측전지 내측에 있었던 약 1cm 정도 되는 mass의 FNA사진. 비만세포종에서 관찰되는 과립양상의 구조물이 확연하게 확인된다.

제가 1년차 수련의들에게 피부종괴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항상 하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과 교과서에 보면 절대 육안적인 병변으로 양, 악성 종괴를 구분하지 말라고 적혀있어요. 특히나 비만세포종의 경우 모든 종양과 mimic하게 나타난다고 적혀있을 만큼 육안적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니 반드시 FNA 수준의 검사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수련의에게 FNA에 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구요.

비만세포종의 경우 세포가 파열되면 세포안의 과립물질들이 주변조직이나 혈관을 통해 노출되게 됩니다. 비만세포의 과립에 들어있는 물질중 대표적인 것들이 Histamine, Heparin등인데 과하게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게 되면 Histamine에 의해서는 allergic reaction이 발생하고, Heparin이 과도하게 나오면 지혈장애가 발생하게 되

죠. 그래서 비만세포종이 의심되는 종괴에서는 전처치로 Histamine receptor blocker를 전처치 하고 FNA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본 환자는 비만세포종 환자였고 아마도 비만세포가 터질 때 노출된 과량의 Histamine에 의해 allergic reaction이 발생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이 것이 두드러기라는 피부병변을 만든 것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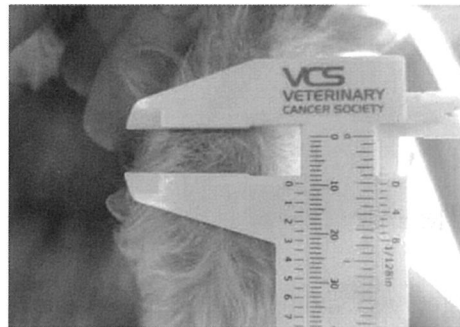


그림 5. 비만세포종으로 확인된 좌측전지 내측의 종괴

이 환자를 비만세포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끝까지 스테로이드 처방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더라도 시간을 놓쳐 환자를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보호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비만세포종이라고 하는 두드러기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증처치만 진행하고 있고 그림6과 같이 육안병변이 개선되었고 소양감도 감소한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대한수의사회지에 썼던 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Back to the basic.

저는 다음달에 더 재미있는 피부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완연하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



그림 6. 대증처치 이후 개선상태의 환자 피부